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한·중 외심적 합성명사의 생성 기제

총 결(중국 산둥사범대)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3. 맺음말 |
| 2. 한·중 외심합성명사의 생성 기제 | |

1. 들어가기

1.1. 문제제기

단어는 전통적으로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고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분류된다. 합성어에 대한 관점이 학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고에서는 합성어를 어기와 어기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단어로 보고, 번역어 ‘compound word’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중 두 언어 중에 모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구성요소의 의미와 합성어의 의미 간에 관련성이 없는 합성어의 수량도 많다.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합성어를 품사에 따라 합성명사,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합성

부사 등으로 나누는 것이며, 합성어 형성의 절차가 한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syntactic/phrasal compound)와 비통사적 합성어(asyntactic/close compound)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나 아니면 굴절형이나 파생형이나에 따라 어근합성어와 종합합성어, 반복합성어를 나누기도 한다.

지금까지 합성어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형태구조와 의미구조 두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형태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눈다. 합성어의 의미 구조에 대한 연구는 합성어가 갖는 새로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합성에 사용된 구성 성분 사이의 의미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합성어의 의미 연구는 주로 병렬, 종속, 융합 합성어 등으로 분류하고 주로 구성요소와 합성어 의미 간의 관련에 중점을 두는데 합성어 의미의 생성 기제를 많이 밝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합성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합성어중의 합성명사 의미의 생성기제를 연구하기로 한다.

1.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내심적 구조(endocentric construction)와 외심적 구조(exocentric construction)의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Bloomfield(1933)이다. 이후 이 개념은 구조주의 문법론 시기에 크게 발전하였으며 문법적 차원에서 통사구조를 분석하는 데 반드시 적용해보아야 하는 분석 도구로 간주되었다. 내심구조와 외심구조는 문법적 차원에서 통사구조를 분석하는 데 쓰인 것으로, 즉 어떤 구조의 구성요소의 기능과 전체의 기능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분류하는 데에 주로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Aronoff&Fudeman(2005)는 이 개념을 통사 구조의 분석에서 나아가 합성어의 분류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통사 구조의 분석이 아니라 형태론 즉 단어 구성의 차원에서도 이 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상철(1998)은 내심과 외심적 이론은 합성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적용했다.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의미적인 속성에 따라 전체 합성어를

의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핵심부, 즉 핵어(head)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핵어를 가지고 있는 내심합성어와 핵어를 가지지 못한 외심합성어로 크게 나누었다.

김영석(1992)도 합성어의 유형을 어근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거나, 내심합성어(책가방)와 외심합성어(춘추, 큰집, 밤낮)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외심합성어의 분류를 보면 의미를 가지고 분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심합성어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흔히 생각되는 과정이고, 한국어에서도 볼 수 있다(술잔, 책가방). 외심합성어에는 ‘춘추, 큰집, 밤낮’ 등이 있다.

중국에서 내심과 외심에 대한 연구는 王力(1944)에서 Bloomfield의 내심과 외심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는 복잡한 통사구조를 검토할 때 그 구조의 기능(form class)과 내부성분의 기능이 같을 경우 내심이며, 이 구조의 기능과 내부성분의 기능이 다를 때 외심구조라고 했다.

朱德熙(1984)는《關於向心結構的定義》에서 내심구조와 외심구조의 의미를 고려하여 문법기능을 연구했다. 구(句)를 분석할 때 단순하게 통사구조로 내심과 외심을 나누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의미의 구조를 고려해야 합성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어떤 구(句) 구조의 핵심 분석에 있어서, 문법적 핵심과 의미적 핵심의 두 가지 요소를 상보적으로 진행할 때 분석이 더 용이하다고 했다. 합성어에 분석하는 데 내심과 외심의 이론을 많이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어의 외심과 내심에 대한 논의는 주로 통사구조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합성어 특히 합성어의 의미적 차원에서 내심과 외심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내심과 외심의 이론을 합성명사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적용하고 여기서 논의할 외심합성명사란 공식적으로 분석할 때 구성성분의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융합되거나 의미 전의를 함으로써 본래 구성성분의 의미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제3의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와, 구성성분들의 의미가 합성명사의 의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즉 의미적인 핵어가 없는 합성명사를 말한다. 이러한 합성명사는 다음과 같은 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곧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이 합성어를 이루는데, 각 성분이 의미적으로 달라짐으로써 C가 된다는 것이다.

(1) 외심합성명사: ㄱ. 바지저고리⇒ <무능력한 자>

ㄴ. 骨肉 ⇒ <자식>

위의 예(1ㄱ)에서 합성명사의 의미는 앞조각과 뒷조각의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지 ‘바지’와 ‘저고리’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앞조각과 뒷조각 모두 합성어의 핵이 될 수 없다. (1ㄴ)중국어의 ‘骨肉’도 마찬가지로 ‘뼈’와 ‘살’이란 뜻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의미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외심합성명사는 특수한 어휘화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휘화 정도가 상당히 높은 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보면 합성명사의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 합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합성명사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이들이 보이는 의미유형의 측면을 살피고 그것이 어떤 생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합성요소와 합성어의 의미관계가 멀거나, 아예 관계가 없는 합성어를 외심합성어의 명칭을 따르고 그중에 한국어 합성명사와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합성명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성기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단어 형성하는 차원에서 외심적 한·중 합성명사의 의미분석을 통하여 합성명사의 의미 특성의 공통점과 이질점도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합성명사들은 선행연구에서 다룬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선행연구의 대상을 본고의 이론적 틀로 재분석하고 그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증명 과정을 보완하고 사례를 보충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은 주요 사전에 등재된 것도 활용할 것이다.¹⁾

2. 한·중 외심합성명사의 생성 기제

의미적 외심합성명사의 의미변화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은 주로 Stern(1931)의 경험적 분류와 Ullmann(1962)의 기능적

1) 본고에서 사용된 예는 한국어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연세한국어사전>과 <우리말 큰사전>등을 참고하였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주로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 <漢語大辭典>등을 참고하였다.

분류이다.²⁾ Stern(1931)에 따르면 의미변화란 어떤 단어가 비교적 다수의 화자의 의해, 전에는 가리킨 적이 없던 하나 이상의 지시물을 새롭게 가리키게 되거나 하나 이상의 지시물을 인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간단히 ‘전통적 의미영역의 습관적 변경’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의미변화가 발생된 원인은 크게 논리적 원인과 수사적 원인 그리고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논리적 기준, 수사법적 기준, 사회·심리적 기준으로 나누어 유형화하고 의미전이와 일어나는 원인을 밝힐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외심적 합명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2.1. 논리적 분류

의미변화 유형의 기준 가운데 논리적 분류는 주로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그리고 의미의 전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기준을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심적 합성명사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의미의 확대를 나타내는 경우와 의미의 전이를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미의 확대와 의미의 전이 두 유형을 대상으로 그 의미변화 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의미가 확대하는 경우와 의미가 전이되는 경우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의미의 확대는 단어가 지닌 개념적 내포가 감소되고 그 적용범위인 외연이 증가·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에서 전체로의 확대, 특수에서 일반으로의 확대,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로의 확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의미 전이는 유사나 인접으로 인한 연상관계에 의해 한 의미에서 제3의 다른 의미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한다.

의미의 확대와 전이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의미의 확대는 구성요소의 의미로부터 확대가 일어나 확대된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키는 데 비하여 의미의 전이는 구성요소가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제3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 그 외심합성명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단일의미인 반면 의미의 확대가 일어난 외심합성명사의 의미는 복합의미(또는 다의)라고 볼

2) 이에 대한 논의는 최창렬 외(1994) 제4장을 참조하였다.

수 있다.

2.1.1. 의미의 확대

이양혜(2005)에서 합성어의 의미는 결합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각 결합요소들의 원래 의미의 합을 먼저 규명하고 나서, 이차적, 삼차적 의미를 규명해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유형의 합성어를 다의적 합성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의미의 확대 또는 확대된 의미란 구성요소의 의미를 기본의미로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파생된 의미라서 합성명사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다음은 한·중 합성명사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아보자.

- (2) ㄱ. 피땀, 밤낮, 밥통
ㄴ. 頂峰, 暗流, 包袱

(2ㄱ)은 한국어에서 의미 확대로 이루어진 외심합성명사인데 ‘피땀’은 기본 의미는 ‘피와 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쓰이고 있다. 의미의 확대로 생기는 의미는 구성요소와의 의미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외심합성명사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밤낮, 밥통’ 등도 마찬가지이다.

(2ㄴ)은 중국어에서 의미 확대로 이루어진 외심합성어인데 ‘頂峰’의 기본 의미는 ‘산의 정상’이지만 의미의 전이를 거쳐 ‘(어떤 분야의) 정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확대된 의미는 구성요소의 의미와 별개의 의미로 쓰일 수 있으므로 외심적 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다. ‘暗流, 包袱’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의미 확대를 거쳐 형성된 외심합성명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다의적 합성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부처, 불장난, 뜯구름, 機關, 窟窿, 高潮’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예이다. 의미적 외심합성명사의 경우는 주로 구체성에서 추상성을 확장하는 경로로 거쳐 의미가 확대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합성명사의 의미는, 통사구조로 환원할 수 있는 기본의미와 새로 파생된 비유적 의미가 모두 사전에 다의적으로 등재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1.2. 의미의 전이

전자처럼 기본의미와 함께 확대된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의 확대라 한다면 기본의미와는 별도로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의 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전이는 유사성이나 인접성 같은 연상 관계에 의해 한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옮겨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의미에서 원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완전한 전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알아보자.

- (3) ㄱ. 풍년거지, 밤손님, 집안,
ㄴ. 領袖, 要領, 骨肉, 手足

(3ㄱ)은 한국어에서 의미의 전이가 나타난 외심적 합성명사이다. ‘풍년거지’는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보는데 자기 혼자만 빠져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 쓰이므로 구성요소 ‘풍년’과 ‘거지’로부터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가 전이된 외심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은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공동체’의 뜻으로 사용되고 ‘밤손님’은 ‘도둑’을 뜻하므로 구성요소의 의미에서 추출될 수 없는 외심합성명사의 예이다.

(3ㄴ)은 중국어에서 의미의 전이가 나타난 외심합성명사의 예이다. 이런 유형의 합성명사에 대하여 董秀芳(2011)에서는 구성요소가 구체성을 가진 명사일 때 이들이 결합하여 추상화와 의미 전이를 거쳐야 어휘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領袖’는 기본의미가 ‘깃과 소매’로서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의미 전이가 발생하여 ‘국가나 단체의 지도자나 영수’ 즉 지도자라는 제3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원래의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 외심합성명사인 것이다. ‘領袖, 要領, 骨肉, 手足’등도 이와 같은 의미를 보이는 외심합성명사이다.

2.2. 수사법적 분류

논리적인 분류가 주로 의미 영역의 크기(확대)와 이질성(전이)에 주목하는 분류였다면 수사법적 분류는 합성어의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수사 방식에 주

묵하는 것이다. 수사법은 종래에 문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석방식이지만 의미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언어학적 연구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된다.³⁾ 언어 연구에서 비유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은 의미 확장이나 의미 전이의 원인을 밝히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비유의 방법이나 유형은 비유의 갈래 혹은 비유법의 종류 등으로 기술되어 왔는데, 본고에서 의미구조를 분석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사법적 기제는 직유(simile),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⁴⁾, 과장(hyperbole)⁵⁾ 등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2.2.1. 직유

의미적 유연성의 상실은 합성어의 구성성분들로부터 합성어의 의미를 유도해 내기가 어렵고 의미간의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합성명사인 경우, 유연성의 유무가 직유와 은유, 환유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직유법에 따른 합성어의 경우 구성요소의 의미와 합성어의 의미 사이에 유연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비유체(喻體)와 대상 사이의 형태적 유사(類似)에 근거하여 합성어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4) ㄱ. 까치눈, 도둑놈의 갈고리, 검버섯

ㄴ. 猴頭, 雞眼, 龍頭, 兔唇, 佛手,

(4ㄱ)에서 보이듯이, 한국어 합성명사 중에 ‘까치눈’은 형태의 유사성을 빌

3) 문학연구에서 사용하는 수사법 분석이 주로 의미의 일회적, 순간적인 변용에 관여하는 수사법에 집중되어 있다면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의미의 순간적 변이가 아니라 개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의미의 변화 과정에 적용된 수사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Ullmann (1962:212)에서 비유 중 은유와 환유의 구별 기준을 ‘유사성’과 ‘인접성’에 둔 것을 참조한 것이다.

5) 이종열(2003) <비유와 인지>에 따르면 과장은 비유법의 한 가지라고 보고 본문은 수사법의 한 가지로 본다.

6) 직유법으로 형성된 합성어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는 방식이 다른 수사법의 경우와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까치눈’의 경우 이 단어의 의미는 ‘까치의 눈과 같은 상처’인데 밀출된 의미는 의미의 전이가 일어났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까치눈’이 ‘까치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까치의 눈’과 모양이 비슷한 상처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미적 외삽성 명사로 보기로 한다.

어 만든 합성어로 ‘발가락 밑바닥에 접힌 금에 살이 터져서 쓰러린 자리’를 의미한다. 까치의 눈처럼 가로로 길게 찢긴 흉터라는 점에서 형태상 유사성이 보이지만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까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외심합성명사이다. ‘도둑놈의 갈고리’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이는 꽃 이름으로서 생김새가 도둑놈들이 쓰는 갈고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4ㄴ)의 ‘猴頭’는 글자의 그대로 해석하면 ‘원숭이의 머리’라는 뜻이지만 실제 이것의 의미는 버섯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모양이 원숭이의 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직유를 적용하여 이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冤唇, 雞眼, 佛手, 龍頭’ 등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생성된 합성명사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이렇게 직유를 적용하여 만든 합성명사가 많은데 이는 이러한 직유의 적용으로 예술성이나,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검버섯’ 등도 이 유형에 속한다.

2.2.2. 은유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은유는 경험의 한 영역, 즉 근원영역(source domain)에서부터 다른 경험의 영역 즉, 목표영역(target domain)⁷⁾으로의 체계적인 인지사상(cognitive mapping)을 통해 투사하는 방법이다.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형성된 경우, 적당한 형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상은 명칭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이 타 대상의 속성 중에 내재해 있을 때, 그 사물로 대치시켜 표현함에 따라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ㄱ. 형태 비유로 의미가 전이된 것

두 대상 간의 형태적인 유사로 인해서 하나의 명칭이 다른 대상을 명명 표현할 때 단어의 의미가 전이된다.

7)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목표영역(target domain)’은 Langacker (2005)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데 ‘근원영역’은 은유의 출발점이 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의미하고 ‘목표영역’이란 은유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각각 지칭한다.

(5) ㄱ. 두꺼비집, 쥐뿔

ㄴ. 豆芽菜, 落湯鷄

(5ㄱ)은 한국어의 경우인데 ‘두꺼비집’은 각 가정에 있는 안전 개폐기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그 모양과 기능을 생각하면 형성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두꺼비와 모양이 유사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 ‘집’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이를 ‘두꺼비집’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쥐뿔’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을 이르는 말’로서 쥐에는 뿔이 없으나 만약 쥐에 뿔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뿔로 기능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보잘 것 없다는 데에서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다.

(5ㄴ)의 ‘豆芽菜’의 기본 의미는 ‘콩나물’이지만, 은유를 거쳐 지칭하는 대상을 확대시킨 ‘키가 호리호리하여 너무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다. ‘落湯鷄’의 ‘닭(鷄)’은 헤엄을 치지 못해 물에 빠지는 낭패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 기대어 이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당황한 사람의 난감한 꼴을’ 비유한 것이다. ‘갈고랑쇠, 바지저고리, 墻頭草, 不倒翁’ 등도 비슷한 생성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명사이다.

ㄴ. 속성 비유로 의미가 전이된 것

속성의 유사성으로 의미전이가 일어나는 한·중 합성명사가 모두 존재한다. 이것도 형태 비유로 일어난 전이와 마찬가지로 생동감을 강화하고 신선한 느낌을 준다.

(6) ㄱ. 가시방석, 밥통, 피땀, 풍년거지

ㄴ. 血汗, 包袱, 棱角, 風雨, 蛇蝎, 皮毛

(6ㄱ)의 ‘가시방석’은 ‘불편스런 장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가시’라는 사물 속에서 ‘찌르다’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념화하여 ‘불편스러움’, ‘괴로움’등의 의미를 나타냈다. 또한 뒤 성분인 ‘방석’의 경우도 ‘깔고 앉는 것’이라는 의미 속성으로부터 ‘장소’, ‘곳’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밥통, 피땀, 풍년거지’도 비슷하게 속성의 유사성으로 빌려서 은유법으로 만들

어진 의미적 외심합성명사이다.

(6ㄴ)의 ‘血汗’도 같은 원리로 형성된 합성명사이다. ‘血’(피)과 ‘汗’(땀)은 서로 어울려 쓰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합하여 ‘노력’이라는 전이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심적 합성명사이다. ‘血’(피)과 ‘汗’(땀)의 속성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包袱’의 기본의미는 ‘보따리’인데 사람들이 꼭 져야 한다는 속성을 빌어 사람들이 부득이 져야 할 짐이나 부담의 의미가 되어 버렸다. ‘棱角, 風雨, 蛇蝎, 皮毛’등은 이 유형에 속한다.

ㄷ. 기능 비유로 의미가 전이된 것

A라는 사물을 명명하기 위하여 B라는 사물의 명칭을 전용하게 될 때, 두 사물간의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의미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7) ㄱ. 기침쇠, 밥주머니

ㄴ. 把柄, 棟梁

(7ㄱ) 가운데 ‘기침쇠’의 경우를 보자. 일반적으로 ‘잠글 때나 여는데 사용하는 쇠로 된 물건이나 기구’를 뜻할 때 ‘-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때 ‘쇠’는 철의 통칭으로서가 아니라 ‘기구’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쇠’의 기능이 절에서 사용되는 종(鍾)의 기능으로 전이하여 ‘기침쇠’, 즉 ‘아침에 일어날 때에 절에서 치는 종’을 의미하게 되었다. ‘밥주머니’는 ‘밥이 담긴 주머니’로 쓸모가 없는 주머니의 기능이 사람의 됨됨이로 녹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다.

(7ㄴ) 가운데 ‘把柄’의 기본 의미는 ‘손잡이’이었으나, 기능의 비유에 의하여 ‘남에게 잡히기 쉬운 허점이나, 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棟梁’은 ‘집을 지을 때 쓰는 좋은 대들보’이고 중요성을 빌려서 사람을 지칭할 때 ‘우수한 인재’를 지칭하게 되었다.

ㄷ. 위치 비유로 의미가 전이된 것

위치의 유사에 의해 의미가 전이된 경우는 두 대상 간에 ‘위치’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을 때 하나의 명칭을 타 대상의 명명에 전용함으로써 위치의 의미가 전이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합성어는 양이 많지 않다.

(8) ㄱ. 속바람, 집사람

ㄴ. 病灶, 城府

(8ㄱ) 가운데 ‘속바람’은 ‘속에 있는 바람’이라는 깊이 든 바람의 위치가 몸 상태로 전이되어 ‘몸이 몹시 지칠 때에 호흡의 균형을 잃고 떨리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집사람’도 ‘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인 ‘아내’를 지칭하게 되었다. (8ㄴ) 가운데 ‘病灶’은 기본 의미가 어떤 병이 발생하는 근원이지만, 위치의 뜻을 전이해서 ‘어떤 사회나 개인의 치유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근본’을 뜻하게 된다. ‘城府’는 옛날 부자 집의 사저(私邸)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사람의 속이 깊다’는 뜻으로 전이되었다. 상기 분류는 은유로 기본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의심합성명사의 예이다.

2.2.3. 환유

환유(8)는 ‘인접(contiguity)성’에 기초하는 인지과정으로 ‘어떤 개체와 관련된 동일영역의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 개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물 내에서 주체와 기능이 인접되어 있을 때 기능이 그 주체를 대신하거나 또는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여 나타날 때 발생하는 의미변화이다.⁹⁾

ㄱ. 전체와 부분의 인접으로 의미가 전이된 것

전체의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거나 전체를 가지고 일부를 지칭할 때

8) 임지룡(1997)에서 환유의 유형에 대한 여러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 Ullman(1962):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그릇-내용물/ 기원된 장소-음식물/ 의복-사람/ 특징적 자질-사람 및 사물/ 행위-결과’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1980): ‘생산자-생산품/ 물건-사용자/ 지배자-피지배자/ 기관-사람/ 장소-기관’ 등의 환유로 정리했다.

9) 여기서 제유(synecdoche)를 환유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시키고, 따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각각 확대지칭과 축소지칭이라고 한다. 어떤 사물의 가장 특징적인 면, 가장 지각하기 쉬운 면을 가지고 그 영역 전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환유는 두 언어의 합성명사의 예들을 통해서 그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 영역의 전체를 가지고, 그 영역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축소지칭의 환유가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축소지칭 환유는 언중간의 상호이해가 가능할 때 그 사용이 허용되며, 합성명사로 형성되어 소멸되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언중의 인증을 받은 단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합성과정에서 환유가 작용하여 형성된 합성명사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9) ㄱ. 밤낮, 콩밥

ㄴ. 紅顏, 鐵窗

(9ㄱ) 가운데 ‘밤낮’은 ‘밤+낮 = 하루 ⇒ 늘’로 그 의미가 확대되는데 이는 여러 날을 이루는 ‘하루’라는 시간상의 일부를 통하여 ‘늘, 언제나’라는 의미 사용된 것으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나타낸 확대지칭의 환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콩밥’은 교도소에서 먹는 특색이 있는 밥으로 나중에 ‘콩밥’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감옥생활’의 전체를 확대 지칭한 환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9ㄴ) 가운데 ‘紅顏’은 ‘예쁜 여자의 얼굴’을 의미하지만 나중에 ‘예쁜 여자’를 확대 지칭하게 되었다. ‘鐵窗’은 본래 ‘철로 만든 창문’이란 기본 뜻이었지만, 교도소나 감옥에 철로 만든 창문이 많이 쓰여 지금은 ‘감옥’을 대신 지칭하게 되었다. 중국어에는 사람이나 물건의 특징으로 그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 지칭하는 합성어의 예가 비교적 많다. 이밖에도 ‘밤별이, 皮毛, 白骨, 巾幗, 鬚眉, 風騷’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ㄴ. [구체성]과 [추상성]의 인접으로 의미가 전이된 것

(10) ㄱ. 치맛바람

ㄴ. 巾幗, 伯樂, 紅娘

(10ㄱ) 가운데 ‘치맛바람’을 보면 ‘치마’라는 여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구체성이 ‘여자 전체’ 혹은 ‘어머니’라는 추상성을 획득하면서 ‘환유’가 적용된 것이다.

(10ㄴ) 가운데 ‘巾幗’은 구체적인 의복이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대신 지칭하는 예인데 그 기본 의미는 구체적으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이었으나, 나중에 추상화되어 일반적인 ‘여자’를 대신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伯樂’과 ‘紅娘’은 특정한 구체적인 인물이 나중에 추상화 되어, ‘인재를 잘 고르는 사람’과 중간에서 남녀사이의 연분을 맺어주는 ‘중매쟁이’로 쓰이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丹青, 口舌, 水火’등 예도 비슷하다.

2.2.4. 환유와 은유

앞에서 은유와 환유가 각각 적용되는 외심합성명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합성명사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수사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11) ㄱ. 치맛바람, 보릿고개

ㄴ. 犧牲, 規矩

(11ㄱ)의 ‘치맛바람’을 보면 ‘치마’라는 여자들이 입는 옷을 사용하여 ‘여자 전체’ 혹은 ‘어머니’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환유’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 ‘바람’은 ‘치맛바람’이라는 합성명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속성’이라는 유사성에 근거하여 ‘바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은유’에 의한 합성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1ㄴ) 중에 ‘犧牲’의 ‘제사용의 양이나 소가 죽음을 당하다’는 의미로부터 손해를 보는 일이나 그런 사람을 비유한 것이고, 환유과정은 특정한 죽음을 당한 소나 양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행위까지 확장되어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의 의미까지도 생성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합성명사의 전이된 현재 의미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기본 의미가 모호하게 되거나, 기본 의미의 흔적이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2.2.5. 과장

과장법(hyperbole)은 전달하고 싶은 뜻을 강조하거나 익살스러운 효과를

내기 위해 일부러 과장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의 한가지이다. 과장은 지시물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이에 대한 표현 기교와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향대과장(向大誇張)과 향소과장(向小誇張)이 있다. 한국어의 합성명사 가운데는 과장법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경우를 찾을 수 없다.¹⁰⁾ 중국어의 경우도 이런 유형의 합성명사가 많지 않다. 다만, 중국어에서 이런 유형의 합성명사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과장법을 사용된 경우가 많다. 다음은 과장법이 적용된 중국어 합성명사의 경우이다.

(12) 千張, 全家福

(12)의 ‘千張’은 글자 그대로 ‘천장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중국 민간에서 먹는 ‘아주 얇고 많이 쌓여 있는 밀가루 음식’을 과장의 수사법으로 표현한 그 음식의 특색을 나타낸 것이다. ‘全家福’ 글자대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가족사진’을 대신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장법을 사용한 합성명사의 형태는 한국어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2.3. 사회·심리적 분류

S. Ullman(1962)은 언어의 의미변화를 심리적 요인과 사회의 공통된 의식 내지 감정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역시 합성명사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분류는 더 좋은 전달 효과를 도모하려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 사회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의미의 변화와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분류이다. 그런데 사회 심리적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금기어에 의한 의미 전이, 단축에 의한 의미 전이, 사회 가치관에 의한 의미 전이, 경어에 의한 의미 전이 등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0) ‘취빨’이 작은 것, 보잘 것 없는 것 정도의 뜻으로 쓰여 그 크기가 쓰임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취의 빨’이라는 형태적 작용이라는 속성을 비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은유가 적용된 외심합성명사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형태 비유로 의미가 전이된 것’ 부분 참조.

2.3.1. 금기어(Taboo)

한국어와 중국어는 예의를 중요시하는 두 나라의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내포하는 어휘 표현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금기어(Taboo)의 사용이다. 금기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사용된다. 하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불쾌감, 공포감,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덜고자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에 대한 신비감, 경외심 등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합성명사 가운데 이런 금기어로 형성된 경우를 살펴보자.

(13) ㄱ. 작은일, 몸엣것, 밤손님

ㄴ. 口條, 淨桶

(13ㄱ)의 ‘작은일’은 ‘소변’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덜기 위해 대신 쓰는 말이다. ‘몸엣것’이 여성의 생리를, ‘밤손님’이 도둑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도 같은 방식의 의미 구조 때문이다.

(13ㄴ)의 ‘口條’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원래 돼지의 혀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 감정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입 안의 긴 조각’ 정도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淨桶’(깨끗한 통)도 ‘변기’를 직접 가리키는 것을 꺼려하는 데서 ‘淨’(깨끗하다)과 ‘桶’(통)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后事’(죽은 후에 해야 하는 일), 短見(자살), 百年(돌아가심) 등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합성어이다.

2.3.2. 단축(shortening)

언어의 경제적 심리에 의한 단축이 의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단축(shortening)¹¹⁾이란 언어사용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심리에 의해서 언어의 일부분을 생략시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언어 사용에서 가능하면 간단한 언어를 사용하여 뜻을 표현하려는 노력은 다양한 차원에서 단축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음운상, 철자상의 축약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기본적인 의미나 통사상의 변화 없이 단지 사용되는 단

11) 다른 말로 축약(clipping)이나 약어(abbreviation)라고도 한다.

어를 축약함으로써 다소 비형식적 용법이나 구어체 환경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유형에 따른 합성명사들은 고전 문헌에서 독립된 문장 중에 중요한 한두 글자를 따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경우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심합성명사 중에는 이러한 ‘단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성요소의 의미로부터 전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원래의 구성요소가 가진 결합에서부터 형태적이거나 통사적인 단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 전이는 더욱 확고해진다.

(14) ㄱ. 쥘손, 하늘소
ㄴ. 弱冠, 木耳

(14ㄱ)의 ‘쥘손’은 어떤 물건을 들 때에, ‘손으로 쥐는 데 편리하게 된 부분’이란 뜻이지만, 그 형태는 ‘쥘 수 있는 손잡이’가 ‘쥘손’으로 단축되어 나타나고 있어 원래 구성요소의 의미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하늘소’도 원래는 ‘하늘에서 나는 소’인데 이것이 진짜 소가 아니고 모양새가 소처럼 생긴 곤충을 지칭하면서 의미적 외심합성어가 된다. 더욱이 구성의 일부요소가 생략되고 단축형으로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를 추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그만큼 의미의 전이는 확고해진다.

(14ㄴ)의 ‘弱冠’은 중국 옛날 문헌 《禮記·曲禮上》에서 나온 말인데 ‘二十曰弱, 冠’ 즉, 스무 살 이면 아직 완전한 성인이 아니지만(弱), ‘冠(모자)’를 쓸만하다는 말로서, 성인식을 거행한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원래의 많은 통사 구성이 단축되어 본래의 의미를 추출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木耳(목이버섯)’도 마찬가지이다. 나무에서 자라는 사람의 귀처럼 생긴 버섯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데 그 구성요소를 생략함으로써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2.3.3. 사회 가치관

언어는 그 사회문화 및 언중들의 의식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언중이 지닌 특정 가치관에 의하여 단어의 사용 의미가 영향을 받는다. 따라

서 이런 사회 가치관 반영되어 의미의 전이가 나타나는 합성명사가 존재한다.

한국어나 중국어의 합성명사 가운데 개와 관련된 단어들에 상당히 많은데 모두 ‘형편없거나 하찮은 것’ 등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라는 단어가 한국과 중국의 특정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여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개를 사랑하여 개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양 사람들의 사회 가치관과는 매우 다른 한국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리’도 한국사회에서는 가난한 시절에 쌀을 대신하여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가난함’ 또는 ‘어려움’을 상징한다. 다음 예를 보자.

(15) ㄱ. 보릿고개, 개차반, 개새끼, 치맛바람

ㄴ. 狗腿子, 落水狗

(15ㄱ)의 ‘개차반’은 구성요소의 의미로는 ‘개가 먹는 차반’이지만 실제 이 합성명사의 의미는 ‘똥처럼 하찮은 것’을 뜻한다. 개를 천시하는 경향 때문에 개가 인간에게 비유될 때 ‘체면도 없고 막된 사람’의 의미로 쓰였으며, 사물로 비유될 때에는 ‘나쁜 것이나 하찮은 것’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개가 먹는 ‘차반’, 즉 음식 역시 똥처럼 하찮은 것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한국인의 사회 가치관을 동원해야 그 의미의 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보릿고개’도 글자 그대로 ‘보리의 고개’가 아니라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피폐한 농촌의 사정을 가리키는 말로 가장 어려운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보릿고개’의 전이된 의미 역시 한국인의 사회 가치관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치맛바람’은 ‘여성의 극성스러운 활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의 모습이 반영된 말이다.

중국어의 경우도 비슷한 합성명사가 존재한다. (15ㄴ)의 ‘狗腿子’의 기본 의미는 ‘개의 다리’였으나, 나중에는 ‘나쁜 사람이나 악한 세력을 의지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중국에서 개는 항상 주인을 따라 다니며 복종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되어 악한 주인을 따라 다니며 주인에

의지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개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역시 중국인의 사회 가치관을 고려해야 이 합성어의 의미 전이를 이해할 수 있다. ‘落水狗’ 역시 마찬가지이다. 구성요소의 의미는 ‘물에 빠진 개’이지만 중국인이 생각하는 개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세력을 잃은 악한 사람’ 정도의 뜻으로 의미가 전이되었다. 한국어 ‘개새끼’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양나라의 한국도 개를 천시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地頭蛇(한 구역을 담당하는 강패 두목, 老狐狸(교활한 사람), 替罪羊(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등도 각각 ‘蛇(뱀), 狐狸(여우), 羊(양)’에 대한 중국인의 사회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다.¹²⁾

2.3.4. 경어(敬語)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낼 때 쓰는 경어(敬語)나 겸어(謙語)¹³⁾ 중에서도 외심합성명사가 존재한다. 의미의 전이가 일어나 합성어가 가진 경어나 겸어의 의미를 원래 구성요소의 의미에서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 경어나 겸어는 주로 한자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고유어 합성명사에서는 이런 구성이 보이지 않는다.

(16) 閣下, 千金, 足下, 鼎力, 芻蕘

위에 든 예는 중국어의 특유한 경어와 겸어인데 구성요소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가 가진 경어 또는 겸어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므로 외심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다. ‘閣下’는 글자 그대로 ‘집 아래’라는 뜻이 아니고, ‘각하’처럼, 상대방을 극도로 존경하고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芻蕘’의 기본 의미는 ‘풀을 베거나 풀을 베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겸어로 쓰일 때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 자신의 조언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로 쓰인다.

12) 이런 분석을 보면 한국어와 중국 두 나라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어휘에도 비슷한 문화요소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나라 나름대로 특유한 문화로 인해 생긴 어휘도 있다. ‘보릿고개’는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어이다.

13) 본고에서는 겸어는 경어중의 한가지로 간주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맺는 말

본고는 한·중 합성명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구성요리로 의미를 추출할 수 없는 합성명사는 외심합성명사의 명칭을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한국어와 중국어 합성명사 가운데 의미전이가 발생하는 외심합성어가 모두 풍부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적 외심합성명사에는 논리적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와 의미가 전이되는 경우가 모두 있는 반면 의미가 축소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그밖에 수사법적 차원의 비유적 의미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거나 전이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언중의 사회·심리적 요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외심적 합성명사의 형성과정에도 이런 수사법과 사회·심리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데 수사법 차원에서 볼 때 특히, 직유나 은유 및 환유 등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공통된 특성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지 방식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는 한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매개체이자 수단이다. 합성명사 중에 한·중 양국의 비슷하거나 상이한 문화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많다. 특히, 사회·심리적 요소가 반영되는 외심합성명사는 특히 두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생활 방식이나 인식 태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심합성어에는 특히 ‘개’를 구성요소로 하는 합성어들이 많은데(개차반, 개새끼 등; 狗腿子, 落水狗 등) 이들은 두 나라 사람들이 ‘개’를 하찮은 것, 소용없는 것 등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각 언어마다 독특한 것들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치맛바람, 보릿고개’ 따위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고 ‘地頭蛇, 替罪羊’ 등은 중국 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는 합성명사이다.

이처럼, 한·중 합성명사의 의미생성기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합성명사의 의미의 고통성과 이질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합성명사의 의미에 연구는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등에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나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학생들에게 합성명사의 의미를 잘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어휘와 문화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서정수(1981), 「합성어에 관한 문제」, 『한글』, 173-175. 한글학회.
안민수(1988), 「복합명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최지훈(1999), 「전의(轉義)합성명사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顧陽·沈陽(2001), 「漢語合成詞的构造過程」, 『國外語言學』, 第3期, 1-16.
戴昭明(1988), 「現代漢語合成詞的內部构造与外部功能的關係」, 『語文研究』, 第4期.
史厚敏 (2009), 「論由比喻造詞形成的复合詞」, 『湖南人文科技學院學報』.
徐通鏘(1994), 「字和漢語的句法构造」, 『世界漢語教學』, 第2期.
徐定栩(2002), 「复合詞与短語句法地位」, 『語法研究和探索』, 北京商務印書館.
李亞培(2001), 「概念隱喻在漢語N+N合成詞中的應用」, 『語文學刊』.
- 고영근·구분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
김정은(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김영석, 이상억(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정동환 (1993), 『국어 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최창렬 외(1994), 『국어의미론』, 개문사.
안상철(1998), 『형태론』, 민음사.
이종열(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郭銳(1996), 『現代漢語詞類研究』, 北京商務印書館.
任學良(1981), 『漢語造詞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董秀芳(1981), 『詞匯化-漢語的双音詞衍生与發展』, 四川民族出版社.
朱德熙(1999),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潘文國외(2004), 『漢語的构詞法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 符淮青(2004), 『現代漢語詞匯』, 北京大學出版社.
- 束定芳(2000), 『隱喻學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 符淮青(2008), 『現代漢語詞匯』, 차이나하우스.
- 周荐(1994), 『詞語的意義和結構』, 天津古籍出版社.
- 周荐(2004), 『漢語詞匯結構論』, 上海辭書出版社.
- Aronoff, Mark(1976), *Word-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Massachusetts.
- Aronoff, M. & Kirsten Fudeman/김경란 옮김(2005), *What is Morphology?*
- George Lakoff and Mark Johnsen (2003), *Metaphors we live by. :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Bloomfei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 Nida,E.A.(1949), *Morph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Ullmann, S.(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국문초록】

합성어는 형태론측면에서 연구의 중점이었다. 지금까지 한·중 합성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만 주로 한국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중국어의 합성어의 대한 연구가 많다. 한국어 고유어의 합성어와 중국어 합성어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합성어에 대한 대조연구는 주로 형태구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합성어의 차원에서 한국어 고유어로 구성된 합성명사와 이에 대응한 중국어 합성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내심·외심적 이론 지식을 합성어의 분석에 도입하여 연구가 벌어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합성명사의 구성요소로 의미를 유출할 수 없는 유형을 의미적 외심합성어로 간주한다. 합성명사의 의미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미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의했다.

그리고, 의미적 외심합성명사의 의미변화 유형은 본고의 주된 기준은 Stern(1931)의 경험적 분류와 Ullmann(1962)의 기능적 분류이다. 각각 논리적, 수사법적, 사회·심리적 각도에서 의미가 변화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문의 결론을 도출했다. 합성명사를 통해 한·중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고 합성명사에 담겨있는 문화적 의미도 조금 언급했다. 본 논문은 한·중 합성어의 의미연구와 어휘와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주제어 : 외심적 합성명사, 의미구조, 의미확대, 의미전이

【Abstracts】

The study on compound nouns generative mechanism in Korean and Chinese

Zhong, Jie

Compound word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word creation. So far, There are so much of the former study, however, the study are very little between the connatural Korean and Chinese compound words. Furthermore, the contrastive study mostly focused on the structure of the morphological structure, not on semantical structure.

This thesis focused the noun compound words by the endocentric construction and exocentric construction theory. In the study we aimed at the meaning of compound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Furthermore, we study the cause of the meaning Semantic change. Based on the Stern(1931)and Ullmann(1962), we classified the compound words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analysed the difference by the examples.

In the end, we draw a conclusion and make a contrastive study between the words and the culture and will study the words of the culture feature in Korean and Chinese.

Key words : exocentric compound word, semantical structure, semantical widening, semantical transterring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